

타일기능사 시험 행동요령 3.

<시험 보기 전>

1. 준비물을 다 챙겼는지 확인한다.

- 신분증, 안전모, 안전화, 보호경(필수), 반코팅장갑, 레이저, 랭가고데, 톱니고데(5mm), 기고데, 헤라, 못, 재료간격재(쿠사비. 십자 스페이서는 쓰지 않는다.) 랭가망치, 빗자루(붓), 메지고데, 스펀지, 고무장갑, 분진마스크, 컴퍼스, 방울집게, 마스킹테이프(하트 가공시 타일 위에 붙이고 컴퍼스 꽃아 사용하면 그리기 편함), 줄자, 600mm 수평대, 커터기(시험장에 있는 공용커터기를 쓸 수도 있으나 워낙 인원이 많아 따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라인더(날이 새 것일 경우 오히려 더 자르기 힘들니 그라인더의 경우 시험장에 있는 것을 써도 좋다), 면실(나일론실은 풀리니까 주의. 시험보기 전에 한번 못에 감아 보라.)

<시험장 도착 후>

1. 시험이 8시 30분에 시작하는 경우 보통 15분 전까지는 꼭 도착하자. 8시 30분에 신분증 확인, 자리 랜덤 배정 후, 도면 나눠주고 감독관이 주의 사항을 다 설명 한 후 보통 9시 정각에 시험을 시작한다.

2. 도면을 받으면 감독관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머릿속으로 함바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계산을 한다. ex) 총 수치- 온장 타일5장- 줄눈5개= 함바의 길이. 즉, $1150-1000-15=135\text{mm}$ 가 함바의 길이이다. 자신의 자재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공구를 쓰는 것 또한 실격이니 주의한다. (특히 그라인더. 타일을 벨리는 것도 안된다. 커터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공동사용 가능.)

3. 측벽의 코너비드를 세워야 하는지 눕혀야 하는지 파악한다.

4. 시험 시작 시 제일 처음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한다.

그라인더 가공을 언제 할 건지(시험 시작하자마자인지, 실을 내린 후인지, 가나방까지 붙이고 자를 건지) 결정한다. 그라인더를 쓸 때는 벽타일, 바닥타일 모두 챙겨가서 한 번에 자르고 돌아오도록 한다.

5. 안전모는 보통 시험 시작 시 착용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독관이 벗으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시험장마다 다르니 감독관의 지시에 잘 따른다.

<시험 시작>

1. 가설물의 규격을 확인한다.(높이, 측벽너비)

높이가 600mm이상이면 수평기준점의 위치를 바닥에서 더 높아진 만큼 올려서 시작한다. 측벽의 넓이도 610mm를 기준으로 좁으면 바르고 넓으면 제거작업을 먼저 한다.

2. 시멘트와 모래는 1:5로 배합한다.(시멘트1삽/고데:모래5삽/고데) 배합하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서 제외이나, 몰탈에 물을 넣는 즉시 시험 시간에 포함된다.

3. 정면 벽을 마주했을 때 줄자로 제일 처음 가로 치수를 확인하고 실을 어디에 내릴지 결정한다. 나누어 주는 벽돌에 못을 박고 실을 내린다.

(가공을 먼저 할 사람은 실 내리기 전에 하트 가공할 것을 먼저 그리기 시작한다.)

4. 수평실을 걸 때, 레이저를 그냥 켜 경우 높이가 낮게 불빛이 나오니 타일을 13~15장 가량 깔고 레이저를 켜거나(자기 레이저에 맞춰서 조정), 바닥에서 25~30mm 간격을 두고 1층 타일이 붙을 수 있도록 자나무를 사용하여 점을 찍는다. (바닥에서 너무 많이 땀 경우 베딩할 때 모래가 많이 들어가니 주의한다.)

5. 타일을 붙일 때 평소보다 밥을 질게 사용한다. 새 타일+새 벽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더불어, 붙인 타일이 도중에 툭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인다. 오작을 제외하고 완성만 하면 붙여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

6. 하트 가공 시, 암컷의 뽕족한 꼬다리가 부러졌을 경우 다시 가공해야 한다. 오작이다.(하트도면과 다르다고 느껴질 만큼의 크기)

7. 정면 완성 후 측면으로 넘어갈 때 다이아몬드의 한 변 치수는 141mm 이다. 140mm로 조금 작게 자르는 게 붙일 때 안전하다.

8. 코너기둥 수치가 60mm일 경우 코너비드 길이를 뺀 실제 타일의 길이는 50mm이다.(두겹과 기둥자리의 타일크기는 다르다.)

9. 코너비드는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 라운드를 주기도 하고 그자를 주기도 한다.

10. 두겹의 코너부분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은 대충 못으로 굵은 후 방울집게로 잘라도 무방하다.(꼭 그라인더로 자르지 않아도 됨)

11. 줄눈 넣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고무장갑 끼고 몰탈을 질게 하여 빈틈없이 메운다.

12. 바닥 베딩 시 모래를 깔고 바로 구베를 잡는다. 양변기와 배수구의 모양을 확인 후 실수 없이 타일을 올려놓는다. 측면 기둥 앞에 바닥 타일(함바) 놓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측면 기둥앞 바닥 타일의 길이는 10mm 절단가공하고, 너비는 기둥 타일의 너비와 차이를 확인하고 가공한다.

14. 베딩을 하다가 실수로 타일을 건드려 떨어뜨렸을 때는 얼른 정신을 붙들여 매고 다시 붙인다. 끝까지 포기는 금물. 중간에 포기하고 나온 후 지진이라도 일어나 시험장의 타일들 떨어지면 중도 포기자들은 재시험 불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끝까지 파이팅.

13. 베딩을 다 마치고 주변 청소를 하고 무엇이든 하고 있다.

감독관이 확인하고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내 작품을 지키고 있다. 감독관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옆사람이 건드리면 나만 손해!